

간에는 0~36% 수준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5). 파종시기별 추대율은 추파의 10월 26일, 춘파의 2월 23일, 3월 16일 및 4월 5일의 순으로 파종이 빠를수록 높았는데, 한지형(단양종)의 4월 5일 춘파와 중간형(DL01) 및 난지형(대서종)의 2월 23일 춘파 이후에서는 거의 추대되지 않았다. 추대율은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높았고, 춘파 중에서는 2월 25일의 추대율이 높다는 보고(Lim *et al.*, 1987; Ra *et al.*, 1987)와 유사한 경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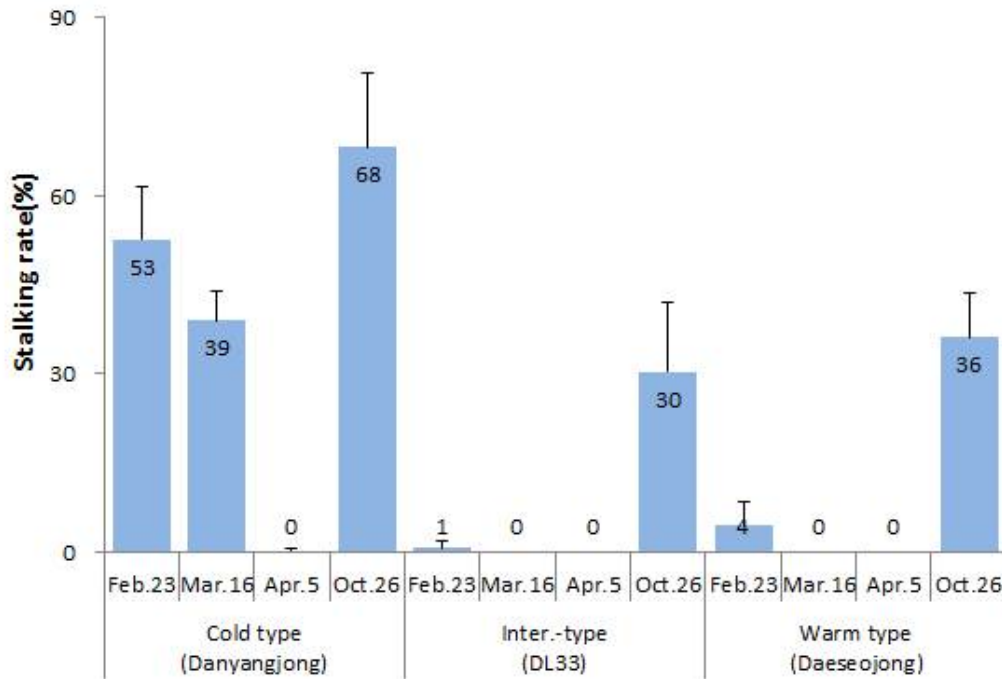


Fig. 5. Effects of ecotypes and planting dates on the stalking rate in the cultivation of garlic

인편 분화율은 추대율과 비슷한 경향으로 생태형별로는 한지형(단양종)이 월등히 높았고,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은 인편분화 정도가 낮았는데, 중간형(DL01)이 난지형(대서종)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Fig. 6). 파종시기에 따른 인편 분화율은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높았는데, 한지형(단양종)은 춘파와 추파 간 차이가 적어 76~99%의 범위 내에 있었고,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은 춘파와 추파 간 차이가 컸다.

난지형(대서종)은 10월 26일 추파의 인편 분화율이 99%였고 춘파는 4~21%로 춘파와 추파 간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이는 난지형(대서종)의 구 비대에 필요한 고온, 장일 조건이 한지형(단양종)보다 일찍 도래하여 파종시기가 늦은 춘파일수록 인편이 분화되지 않고 단구로 비대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5월 30일에 조사된 지상부의 생육은 Table 20과 같다. 생태형별로 한지형(단양종)이 중간형(DL01)이나 난지형(대서종)보다 초장, 엽수, 엽초장, 엽초경, 엽장 및 엽폭 모두 생육이 양호하였다.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 간에는 초장, 엽초경, 엽장 및 엽폭은 차이가 없었고, 엽수 및 엽초장은 난지형이 중간형보다 생육이 양호하였다. 파종시기 별로 초장 등 모든 생육특성은 춘파가 추파에 비하여 생육이 저조하였고, 춘파는 파종이 빠를수록 양호하였는데, 이는 Lim *et al.*(1987)과 Ra *et al.*(1987)의 보고와 비슷한 경향이였다.